

필환경시대...아이디어 만난 친환경 제품

광주·전남 이마트 '펍수 장바구니' 인기...대여율 70% 넘어 페트병 가방·사과껍질 운동화 등 친환경 상품 잇따라 출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친환경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 변화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사과껍질, 페트병 등을 100% 재활용해 만든 상품이 주목받고 있고 유통가의 친환경 판매 전략도 다양해졌다.

15일 광주·전남 7개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인기 크리에이터 '펍수'가 그려진 한정판 장바구니 대여율은 이날 기준 70%에 달한다.

총 4종인 '펍수 장바구니'는 소형 10만개, 중형 5만개, 스페셜 펍수 구니백 5000개, 그래픽티 5000개 등 전국적으로 16만개 배포됐다.

펍수 장바구니를 빌리려면 특정 상품을 포함해 구매 금액 각 5만원·10만원을 넘기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펍수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장바구니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ONS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소셜미디어(SNS) 인증사진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최후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2030세대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한편, 친환경 장바구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펍수 콜

라보 장바구니를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비활동에 동참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식품과 패션 등 제조업체도 개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친환경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오비맥주는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의 병맥주 포장용 종이상자 소재를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용지로 교체하기로 했다. 바뀐 상자에는 '에코 프렌들리' 친환경 마크와 안내 문구가 들어간다. 카스 캔맥주 포장 필름도 두께를 줄여 이를 통해 연간 필름 사용량을 96t 줄일 방침이다.

패션기업 한섬의 '타미힐피거'는 사과껍질로 만든 운동화를 선보였다.

'에플스킨 스니커즈'로 불리는 이 운동화는 전체 소재의 24%가 사과 껍질을 재활용한 '비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비건 가죽은 동물 가죽이나 털을 사용하지 않고 합성 피혁이나 과일 껍질 등의 대체 소재로 만든 가죽을 말한다.

10여 년 전 국내 최초로 친환경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섬유를 만든 효성티앤씨는



이마트가 이달 초 선보인 '펍수 장바구니'.

페트병을 활용한 친환경 가방을 만들 예정이다. 500ml 페트병 기준으로 16개면 친환경 가방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효성 측은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아시아 소비자들은 친환경 식품을 더 많이 찾는다는 조사결과가 15일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컴퍼니가 아시아 지역 소비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하순에 벌

인 설문조사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식품 소매시장의 재해석'에 담겼다.

한국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식품을 살 때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친환경 식품을 사고 싶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잠이 보약...편안하게 주무세요"

15일 ㈜광주신세계 직원이 본관 5층 속옷 편집매장 '엘라코닉'에서 먼 소재의 다양한 잠옷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롯데 패밀리행사 2탄

수완 롯데아울렛서 22일까지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16~22일 일주일 동안 유통 계열사인 하이마트, 립스와 '롯데 패밀리행사 2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건강·미용 전문점 '립스'는 250여 종 인기상품을 할인가에 내놓는다.

주요 상품은 민감 피부를 위한 기초 화장품과 마스크팩, 트러블 패치 등이다. 립스에 따르면 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지난 2~3월 '트러블 케어' 상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5900~9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메디큐브 레드레이징크림 대용량', '벨라몬스터 보습이 한정 세럼패드'(1+1), '어라운드미 향기가득 비타바다워시세트' 등을 단독 할인가에 만날 수 있다.

하이마트는 삼성·LG전자 인기품목을 제휴카드 결제하면 정상이 대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이중열 점장은 "롯데 패밀리행사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위기 농어업인 위한 상생장터 연다

광주신세계 19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등 100여 종

㈜광주신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과 중소 협회사를 돕기 위해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15~19일 닷새 동안 1층과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상생장터'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와 함께 여는 이번 행사에는 21개 지역 농가와 농식품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농가는 지역 특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 100여 종을 내놓는다.

1층 행사장에서는 농산물·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전남 한우와 전복·우럭 등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요리 시연이 벌어진다.

학교 급식 연기로 판매가 부진한 장성 사과, 나주 멜론 등 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매대가 채워진다.

대표 상품으로는 곡식 사과(8개·8800원), 여수 갓김치(1kg·1만원), 순천 전통된장(1kg·2만3000원), 장성 삼채 낙지젓갈(100g·4500원), 나주 머스크멜론(개



15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에 마련된 '코로나19 극복 농어가 돕기 상생장터'에서 지역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당 1만원) 등이 있다.

전남 농산물로 구성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시중가 보다 할인 가격이 만난다.

이번에는 상추·깻잎·적근대·머위·감자 등 1만원대 꾸러미와 상추·깻잎·우정란(10구)·감자·열무·청국장 등으로 구성된 2만원대 꾸러미가 마련됐다.

광주신세계는 행사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토'(500g)를 매일 선착순 100명에 증정한다.

앞서 광주신세계는 광주지역 청년에게 전달될 긴급구호물품 기금 1000만원을 광주청년센터에 기탁했으며, 중소 협회사 50여 개사에 4~5월 상급대금을 미리 지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신선식품 오전 한정 세일에 매출 '쑥'

광주 이마트 전년비 17%↑

광주지역 이마트가 지난 달 '오전 한정 세일'을 벌인 결과 이 시간대 매출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오전 한정 '신선식품 타임특가'를 벌인 시간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증가했다.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객단가)은 24.4% 올랐다.

이마트는 지난 달 14~21일, 23~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바나나·오렌지 등 '신선식품 타임특가' 상품을 매일 선보였다.

이마트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이 덜 붐비는 오전에 장을 보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 같은 판매 전략을 세웠다.

지난 달 2주 동안 이마트가 진행한 '타임세일' 매출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고객 소비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선식품과 요리매장에는 상품의 산지·품종·생산자·요리법 등 이야기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물을 보충했다. 수산매장 등에는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선보이는 '오더-메이드'(Order-made) 방식을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